

11. 안전

11-1 야간활동 안전성

11-2 야간활동이 불안한 원인

11-3 야간활동이 불안할 때 대처방법(행동)

11-4 기초질서 준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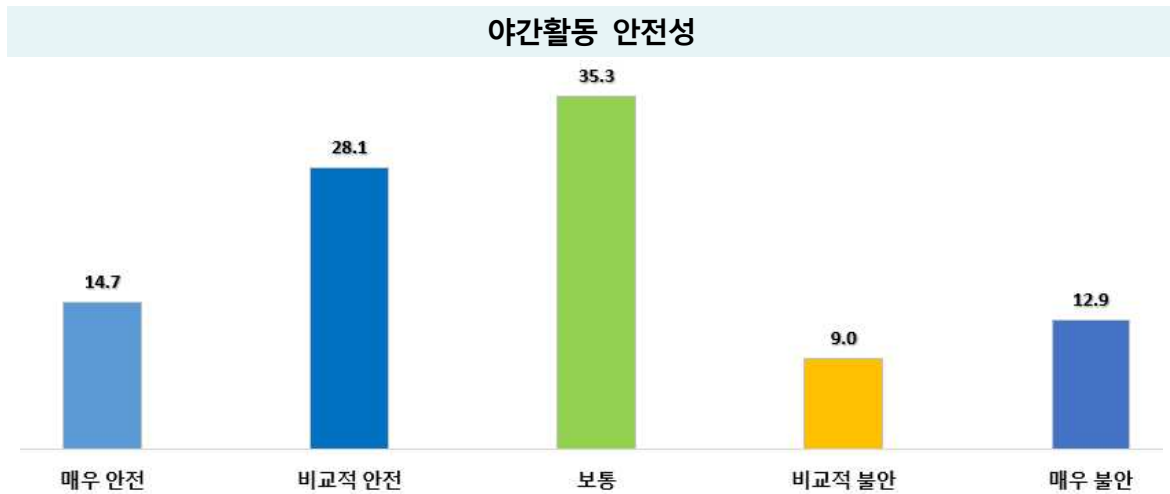
11-5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주된 이유

11-6 소방시설 구비여부

11-1 야간활동 안전성

야간활동에 대한 안전성은 「보통」수준

- 야간활동 및 보행에 대한 안전성은 「안전(매우 안전+비교적 안전)」에 대한 전체 응답이 42.9%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2019년 야간 활동에 대한 안전성은 2017년 「안전(매우 안전+비교적 안전)」 26.5% 대비 16.4% 증가함.
 - 지역별로 중부권 「안전」(30.4%)보다 「불안」(36.5%)로 불안한 수준이며, 북부권은 「보통」응답이 가장 많았고, 「불안」(18.9%)보다는 「안전」(38.2%) 응답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서남부권은 「안전」 57.9%, 「불안」 9.4%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안전」응답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15~29세는 「안전」(33.0%)보다 「불안」(39.2%)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



[표 11-1] 야간활동 안전성

(단위: %)

구분	계	매우 안전	비교적 안전	보통	비교적 불안	매우 불안
2017년	100.0	4.0	22.5	46.7	20.4	6.4
2019년	100.0	14.7	28.1	35.3	9.0	12.9
< 지역별 >						
중부권	100.0	12.6	17.8	33.1	11.4	25.2
북부권	100.0	13.7	24.6	42.9	13.8	5.0
서남부권	100.0	17.5	40.4	32.7	3.6	5.8
< 성별 >						
남자	100.0	15.8	28.1	35.5	8.4	12.2
여자	100.0	13.5	28.1	35.0	9.7	13.7
< 연령별 >						
15~29세	100.0	11.3	21.7	27.8	13.3	25.9
30~39세	100.0	6.6	35.6	32.4	13.4	11.9
40~49세	100.0	10.3	31.5	35.3	8.3	14.6
50~59세	100.0	19.9	29.8	29.1	8.2	13.0
60세 이상	100.0	16.0	26.9	40.3	7.6	9.2
65세 이상	100.0	14.9	27.0	43.1	6.4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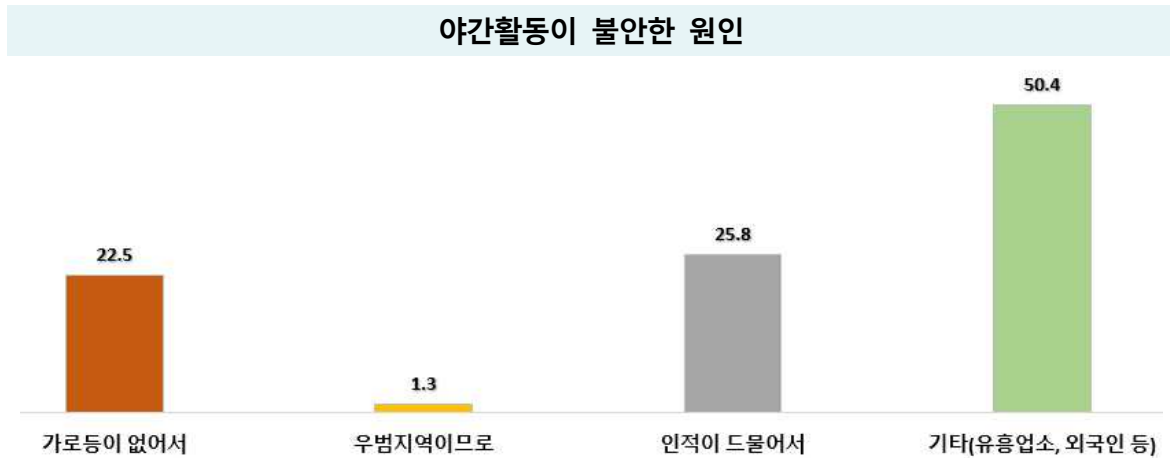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11-2 야간활동이 불안한 원인

「기타 (인도가 좁다 등)」

• 야간활동이 불안한 원인으로 「기타」 응답이 50.4%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의견으로 '인도가 좁다' 등 다양한 의견으로 조사되었고, 「인적이 드물어서」 25.8%, 「가로등이 없어서」 22.5% 순으로 나타남.

- 2017년 조사결과 대비 「가로등이 없어서」 응답은 60.5%에서 22.5%로 38.1% 감소, 「인적이 드물어서」 응답은 28.9%에서 25.8%로 3.1% 감소함.
- 지역별로 중부권은 「기타」(65.2%)이 가장 높았고, 북부권은 「인적이 드물어서」(55.9%), 서남부권은 「기타」(54.1%)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30대는 「가로등이 없어서」 응답이 가장 많았고, 나머지 연령대는 「기타」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11-2] 야간활동이 불안한 원인

(단위: %)

구 분	계	가로등이 없어서	우범지역이므로	인적이 드물어서	기타(유흥업소, 외국인 등)
2017년	100.0	60.5	6.8	28.9	3.8
2019년	100.0	22.5	1.3	25.8	50.4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18.4		16.4	65.2
북 부 권	100.0	34.8	6.5	55.9	2.9
서 남 부 권	100.0	22.4		23.5	54.1
< 성 별 >					
남 자	100.0	23.4	1.8	20.3	54.5
여 자	100.0	21.5	0.9	31.3	46.3
< 연 령 별 >					
15 ~ 29 세	100.0	12.8		25.0	62.2
30 ~ 39 세	100.0	34.3	4.3	30.9	30.5
40 ~ 49 세	100.0	24.8		25.3	49.9
50 ~ 59 세	100.0	34.2	2.6	18.7	44.5
60 세 이상	100.0	18.3	1.2	28.8	51.7
65 세 이상	100.0	13.1	1.8	27.0	5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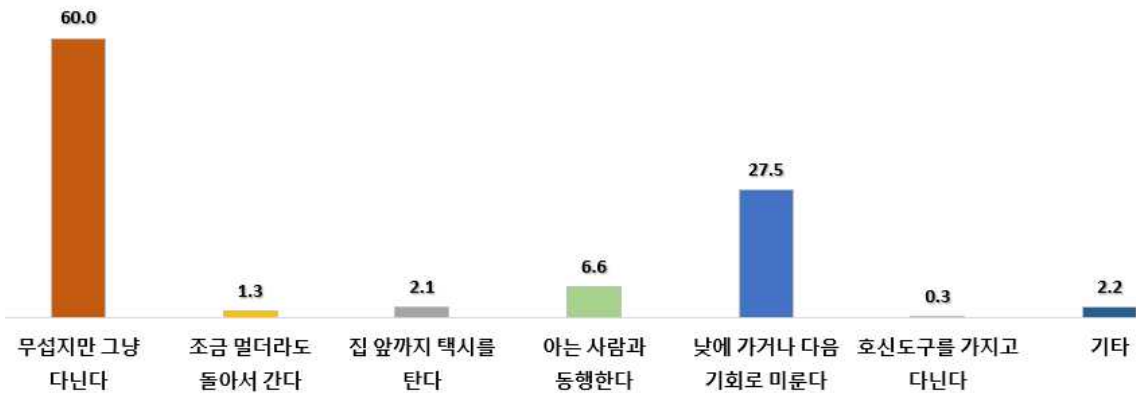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11-3 야간활동이 불안할 때 대처방법(행동)

야간활동이 불안할 때 대처방법은 「무섭지만 그냥 다닌다」

- 야간활동이 불안할 때 대처행동으로 「무섭지만 그냥 다닌다」 60.0%로 가장 많고, 「낮에 가거나 다음 기회로 미룬다」 27.5% 순으로 나타남.
- 「무섭지만 그냥 다닌다」와 「낮에 가거나 다음 기회로 미룬다」 두 응답에 집중되어 있음.
- 지역별로 중부권(71.8%)과 북부권(44.9%)은 「무섭지만 그냥 다닌다」응답이 더 많고, 서남부권은 「낮에 가거나 다음 기회로 미룬다」 응답이 45.6%로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 「무섭지만 그냥 다닌다」 응답은 남자(67.4%)가 여자(52.6%)보다 높게 나타나며, 연령별로 50대에서 70.3%로 높은 응답을 보이며, 「낮에 가거나 다음 기회로 미룬다」 응답은 여자(37.5%)가 남자(17.6%)보다 높게 나타나며,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15~29세에서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임.
- 「낮에 가거나 다음 기회로 미룬다」 응답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야간활동이 불안할 때 대처방법(행동)



[표 11-3] 야간활동이 불안할 때 대처방법(행동)

(단위: %)

구 분	계	무섭지만 그냥 다닌다	조금 멀더라도 돌아서 간다	집 앞까지 택시를 탄다	아는 사람과 동행한다	낮에 가거나 다음 기회로 미룬다	호신도구를 가지고 다닌다	기타
2017년	100.0	55.3	3.0	1.0	3.4	29.6	0.2	7.5
2019년	100.0	60.0	1.3	2.1	6.6	27.5	0.3	2.2
< 지역 별 >								
중부권	100.0	71.8	0.5	0.9	5.2	21.6		
북부권	100.0	44.9	4.9	5.2	9.0	31.0	1.3	3.7
서남부권	100.0	34.6		2.3	8.7	45.6		8.7
< 성 별 >								
남자	100.0	67.4	1.3	1.7	8.5	17.6	0.6	2.9
여자	100.0	52.6	1.4	2.4	4.6	37.5		1.5
< 연령 별 >								
15~29세	100.0	56.8		2.7	5.2	35.3		
30~39세	100.0	52.0		4.1	21.8	8.2		13.9
40~49세	100.0	58.7	7.9	4.5	4.0	18.0		6.9
50~59세	100.0	70.3	1.7	2.6	4.8	19.1	1.5	
60세 이상	100.0	59.1			5.2	35.6		
65세 이상	100.0	63.3			1.9	34.8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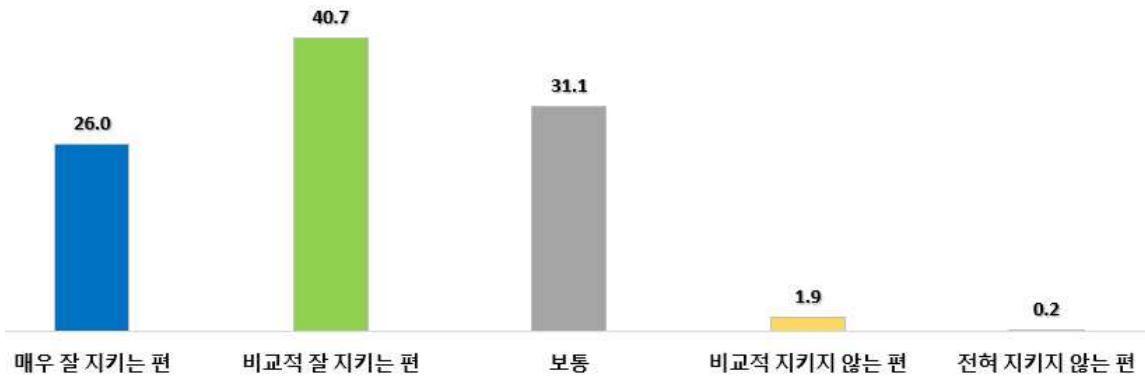
11-4 기초질서 준수 여부

기초질서를 「잘 지키는 편」 66.8%

- 자기 자신이나 타인이 평소에 기초질서를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잘 지키는 편(매우 잘 지키는 편+비교적 잘 지키는 편)」 6.8%, 「보통이다」 31.1%, 「지키지 않는 편」 2.1%임.

- 2017년 대비 「잘 지키는 편」응답은 55.3%에서 66.8%로 11.5% 증가함.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모든 분류에서 기초질서를 잘 준수하는 것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 「잘 지키는 편」응답은 북부권 70.7%, 서남부권 67.4%, 중부권 63.5%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67.8%)가 여자(65.6%)보다 「잘 지키는 편」이라고 응답함.
- 기초질서를 가장 잘 지키는 분류는 업종별 기능/노무직 종사자로 「잘 지키는 편」 81.4%로 나타내며, 가장 지키지 않는 분류는 혼인상태별 미혼 응답자로 「지키지 않는 편」 4.5%로 나타남.

기초질서 준수 여부



[표 11-4] 기초질서 준수 여부

(단위: %)

구 분	계	매우 잘 지키는 편	비교적 잘 지키는 편	보통	비교적 지키지 않는 편	전혀 지키지 않는 편
2017년	100.0	12.1	43.1	41.8	2.8	0.1
2019년	100.0	26.0	40.7	31.1	1.9	0.2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24.1	39.4	32.5	3.6	0.3
북 부 권	100.0	25.7	45.0	27.5	1.7	0.2
서 남 부 권	100.0	28.1	39.4	32.0	0.5	
< 성 별 >						
남 자	100.0	26.8	41.0	30.2	2.0	
여 자	100.0	25.1	40.5	32.2	1.8	0.4
< 연 령 별 >						
15 ~ 29 세	100.0	32.9	30.4	32.7	4.0	0.0
30 ~ 39 세	100.0	17.5	54.7	26.7	1.0	0.0
40 ~ 49 세	100.0	27.2	46.5	23.5	2.9	0.0
50 ~ 59 세	100.0	32.4	38.6	26.1	2.5	0.4
60 세 이상	100.0	22.8	40.4	35.5	1.1	0.2
65 세 이상	100.0	21.2	40.7	37.0	0.9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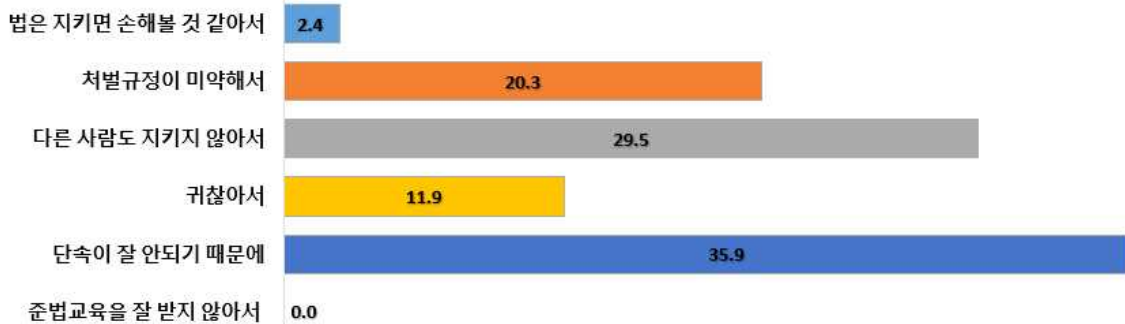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11-5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주된 이유

「단속이 잘 안되기 때문에」

- 자신이나 타인이 평소에 기초질서를 비교적 지키지 않는다는 응답자 중에서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주된 이유로 「단속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응답이 35.9%로 가장 높았고, 「다른 사람도 지키지 않아서」 29.5%, 「처벌규정이 미약해서」 20.3%, 「귀찮아서」 11.9% 순으로 응답함.
- 「단속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응답은 2019년 35.9%로 2017년(18.8%)대비 17.1% 증가하였으며, 「다른 사람도 지키지 않아서」 응답은 16.3%에서 29.5%로 13.2% 증가하였으며, 반면 「귀찮아서」 응답은 2017년 36.3%에서 2019년 11.9%로 감소함.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주된 이유



[표 11-5]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주된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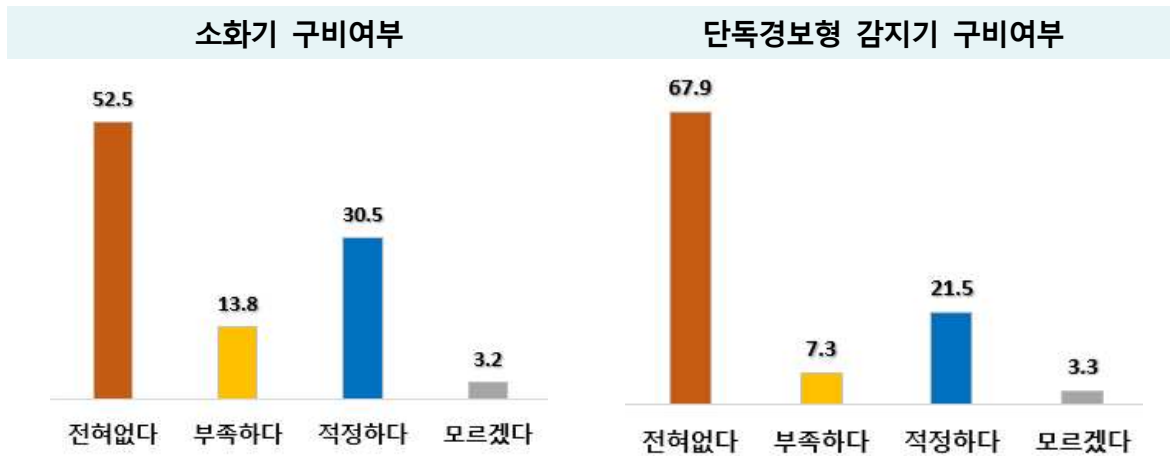
구분	계	법은 지키면 손해 볼 것 같아서	처벌규정이 미약해서	다른 사람도 지키지 않아서	귀찮아서	단속이 잘 안되기 때문에	준법교육을 잘 받지 않아서	기타
2017년	100.0	8.9	0.0	16.3	36.3	18.8	17.6	2.1
2019년	100.0	2.4	20.3	29.5	11.9	35.9	0.0	0.0
< 지역 별 >								
중부권	100.0	3.4	29.2	35.4	3.8	28.2		
북부권	100.0			8.5	44.8	46.7		
서남부권	100.0			32.1		67.9		
< 성 별 >								
남자	100.0	4.6	34.2	23.3	9.7	28.2		
여자	100.0	0.0	5.4	36.3	14.5	43.8		
< 연령 별 >								
15~29세	100.0		62.8			37.2		
30~39세	100.0					100.0		
40~49세	100.0			59.4		40.6		
50~59세	100.0			57.3	19.0	23.7		
60세 이상	100.0	8.1	19.1	15.3	23.4	34.0		
65세 이상	100.0	13.7	15.1	15.1	27.3	28.8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11-6 소방시설 구비여부

소화기 「적정하다」 30.5%, 단독경보형 감지기 「적정하다」 21.5%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소방시설이 기준에 맞게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없다」 응답이 소화기는 52.5% ,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67.9%로 응답하였으며, 「적정하다」는 응답은 소화기 30.5%, 단독경보형 감지기 21.5%에 불과함.
 -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응답률이 비슷한 추세로 나타남.
 - 「전혀 없다」응답에 대해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부권은 소화기(61.5%)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71.6%)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부권에서는 소화기는 54.1%,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68.8%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됨. 서남부권은 소화기 42.7%, 단독경보형 감지기63.9%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연령별로 15세~29세는 「모르겠다」 응답이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모두 40.6%로 소방시설에 대하여 관심과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며, 신안군 전체적으로 소방시설에 대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됨.



[표 11-6] 소방시설 구비여부

(단위: %)

구분	계	전혀없다	부족하다	적정하다	모르겠다
소화기	100.0	52.5	13.8	30.5	3.2
단독경보형 감지기	100.0	67.9	7.3	21.5	3.3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